

# K-MILK 온정 나눔,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 동참

경기점수 1점당 1만원씩 적립해 우유로 전달



우리협회는 지난 10월 4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K-MILK 천사나눔데이’ 행사를 호평 속에 치렀다.

‘K-MILK 천사나눔데이’는 우리협회와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농구단과의 ‘국산우유 사용인증 K-MILK 후원식(9.12)’에 이어 K-MILK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본 행사를 통해 전자랜드는 2015~2016 정규시즌 중 승리한 경기의 점수 1점당 1만원씩을 적립하여 시즌 종료 후 인천지역의 아동기관에 우유를 전달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많은 농구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이날 행사는 '사랑의 우유 기부탑' 제막에 이어 '케이밀크 사랑의 우유나눔 협약' 체결을 알리는 기념사진 촬영으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사랑의 우유 기부탑은 인천 전자랜드 홈구장에 설치되어 시즌 종료시까지 운영되며 10월 1일 현재, 우유전달을 위해 누적된 금액은 총 413만원이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초청된 인천지역 아동기관 어린이 100여명이 K-MILK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관람하여, K-MILK에 대한 일반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었다. 현장 대표소에서는 K-MILK 인증제품을 제시할 경우 관람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우리우유와 유제품을 먹으면서 경기를 관람하는 농구팬들도 눈에 띄었다.



장외에서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실시됐다. 행사 전날인 10월 3일부터 4일까지 경기장 외부에서 ‘도심속목장나들이’가 진행되어 도시생활로 젖소를 접하기 힘든 아이들과 성인들이 낙농산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외부행사장 한켠에 K-MILK 홍보관을 설치하여 K-MILK의 의미와 국산 우수사용인증 제품의 우수성을 인천시민들과 농구팬들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외부 행사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K-MILK 마크가 삽입된 거대한 배너였다. 음과 양의 조화를 파랑색과 빨강색을 사용해 표현한 K-MILK 마크가 파란 하늘아래 펼쳐이는 모습은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형배너 외에도 K-MILK가 삽입된 포토월을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경기장 내외부에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K-MILK 마크가 자연스럽게 인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 손정렬 회장은 “낙농가들은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 여러분께서 우유 및 유제품 구입시 국산우유 사용을 인증하는 K-MILK를 확인해주시다면 낙농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낙농가와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행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관중들의 열띤 응원 속에 치러진 이날 경기는 인천 전자랜드 선수들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74대 88점으로 전자랜드가 아쉽게 패배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는 승리의 부적인 K-MILK를 어깨에 장착한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